AJOU
GREAT
TURNING
바르게 다르게 크게-

2015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2015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CONTENTS

최우수

■ **온지식공작소 – 교학상장을 하는 곳** ····· 07
사학전공(과) 10 이지수

우 수

■ **'정리의 힘' 을 키워 내 미래 연다** ····· 15
미디어학전공(과) 10 김한별

■ **공대생이 공대생에게 전하는 글 잘 쓰는 방법** ····· 23
응용화학생명공학전공(과) 11 류균

■ **자유 속에서 내가 찾은 것** ····· 31
국어국문학전공(과) 13 양성은

장 려

■ **[UCC] 나만의 코딩 방법** ····· 39
미디어학전공(과) 11 김성진

■ **경제학 과목의 특성과 관련된 스터디의 적절한 운영과 활용 방안** ····· 42
경제학과 09 유지원

■ **영어공부, 시작을 바꿔라!** ····· 49
컴퓨터공학전공(과) 09 이동기

■ **학술논문을 통한 학습법** ····· 54
금융공학전공(과) 10 이호언

■ **뽀모도로 기법을 통한 학습법** ····· 59
금융공학전공(과) 10 정성민

2015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A J O U U N I V E R S I T Y

최우수

▪ 온지식공작소 – 교학상장을 하는 곳

사학전공(과) 10 이지수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2015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온 지식공작소 – 교학상장을 하는 곳

사학과 10 이지수

멋진 사람들과 '온 지식공작소'라는 모임을 지난 1년간 함께 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신이 정한 주제를 연구해오고,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왔지요. 부단히 성장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변화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청춘남녀들에게 '**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이 아직 어린아이든가, 너무 빨리 커버린 노인일 뿐이라 생각했지요. 20대 청춘남녀 대학생들에게 성장이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학점, 영어점수, 취업, 연애, 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를 찾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오직 나만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말이죠. 이 무대를 찾는데 대학생활을 오롯이 사용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맛보고, 때로는 깊게 다이빙 하는 연습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분야들을 연구해 나간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그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 들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매 순간마다 한 뼘씩 성장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 방법을 고민한 결과, 저는 세 가지 원칙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야 멀리 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수업 시간에 우연히 만났지만 성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세 명이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스토리텔링 작가를 꿈꾸던 저, 인문학과 경영학의 합체로봇이 되고 싶다던 김익조 학생, 외국어 학습과 자기계발에 뜻을 둔 대학원생 류용호, 이 세 사람이 모임의 첫 번째 멤버가 되었지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설명하라**'입니다. 가르치며 배우고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한번 설명한 지식은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식을 그저 결과물만 보이는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판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단순합니다.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의 단점은, 처음의 열정이 식으면 추진력 또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단점들을 잡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온 지식공작소'는 그런 배경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주 1회**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발표를 준비합니다. 모임 당일에는 강의실을 예약한 뒤에 빌리고, 발표자는 연단에 서게 됩니다. 칠판에 판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발표내용을 경청합니다. 그 동안 강의실 뒤편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캠코더로 발표를 녹화하고, 유튜브에 공유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15분**의 발표시간이 끝나면, 약 5분간의 질문과 **피드백**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앉아있던 사람이 무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모임을 지속해온 결과,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 분야의 발표를 하던 끝에 '**스토리텔링**'이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시나리오 작법, 소설 작법, 스토리텔링의 기본원칙, 플롯과 캐릭터 구성 등을 파고 들었습니다. 지식을 나눌 때는 마치 제가 '이미 굉장한 작가가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1년 이상 쌓이니 이제 제가 진짜 작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60페이지의 시나리오 한편을 완성했고, 운 좋게도 저작권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프로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영학과 김익조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히든챔피언– 독일지역 기업연구' 동아리를 직접 이끌기도 했죠. 그는 온 지식공작소에서 경영학과 인문학의 공통지점을 연구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인문학**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학**을 동시에 공부한 그의 뿌리는 굉장히 굳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나무의 줄기가 된 것이 바로 우리 모임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대학원생 류용호 학생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모임의 핵심 가치인 성장과,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많은 학생들의 공부를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제 중국어 기초과정을 함께 도와주기도 했고, 다른 학생들의 일본어 공부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원 시 '누구나 학교'에 가서 **외국어** 학습법,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항상 타인의 성장을 돕던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늦게 합류한 백지혜 학생의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여러 번의

발표를 모임에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끌어 내고 북돋아주는 **코칭 및 상담**을 하고 싶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대학 경력개발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이지연 코치님을 찾아가 직접 배우고 길을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에 몰입하는 모습이 언제나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분명 더욱 정진해 나갈 겁니다.

우리들이 성장해 올수 있던 핵심 이유는 바로 '**말하기**'의 마법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일종의 마법의 주문처럼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언의 '**성취**' 또한 분명히 다가옵니다. 즉, '나는 경영학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카메라가 돌아가는 무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결과 자신의 실력의 성장과 뚜렷한 자아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많은 강연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TED, 열정 100도씨, 세상을 바꾸는 15분, 유튜브를 떠도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지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열망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고 싶고, 삶의 교훈과 열정을 듣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모두 듣기에는 커다란 열정을 보이지만, '말하기'에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오직 한 분야의 전문가나 프로가 되야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민망해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다듬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TED에서 하는 강연보다 더 훌륭한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수십년을 한 분야에 몰입해서 열정을 불태운 사람들을 그저 흉내 내는데 그치지 않을까?' '수 만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강연과, 3명의 대학생들이 시작한 모임을 비

교라도 할 수는 있을까?'라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본과 규모, 시스템과 연사들의 수준 모두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성장합니다.** TED는 이미 완숙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보름달** 같은 강연입니다. 연사가 되려면 이미 완숙한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TED는 우리가 강연을 듣기는 용이하지만, 무대에서 말하기에는 적합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온 지식공작소는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 결과 점차 스스로를 채워가는 **초승달** 같은 조직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미미하더라도, 그 성장률에 있어서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모임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력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온 지식공작소의 '온'은 순 우리말로 100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슬로건에도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가지 지식을, 100명의 사람 앞에서, 100번의 강연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요. 첫 마디는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교학상장, 즉 지식을 말합니다. 100명의 사람이란 함께 하는 와중에 생기는 지식의 다양성과, 서로에게 오가는 피드백에서 나오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번의 강연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강연에 필요한 매너와 발표의 기술, 연습을 통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은 그저 간단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그 목표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지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지난 1년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배짱을 부려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나아갈 새로운 사람들을 오늘도 꿈꿉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15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A J O U U N I V E R S I T Y

우 수

- **'정리의 힘' 을 키워 내 미래 연다**
  미디어학전공(과) 10 김한별
- **공대생이 공대생에게 전하는 글 잘 쓰는 방법**
  응용화학생명공학전공(과) 11 류균
- **자유 속에서 내가 찾은 것**
  국어국문학전공(과) 13 양성은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2015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정리의 힘’을 키워 내 미래 연다

미디어학과 10 김한별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한별입니다.

먼저 이번 학습스토리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지난 2년 동안 주변의 많은 학우들이 궁금해 하고 또 제 자신도 특별하다고 자부하는 **강의를 듣고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노트북과 외장하드 활용을 통한 학습자료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강의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꺼내 보고 각 특정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우들은 강의 때마다 강의교재와 강의노트 그리고 참고 자료라는 이름의 학습도구들을 준비하는데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 학기에 수강한 과목들의 수많은 출력, 필기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볼 때 ‘노트북과 외장하드’는 단순히 IT 기기가 아니라 ‘**세련된 학습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가 끝나면 배웠던 과

목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그동안 모아둔 수많은 자료들을 쉽게 버리거나 쌓아두던 제가 이 '세련된 학습도구'를 사용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강의를 들을 때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나서의 시간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몇 가지 구성과 디자인으로 정리**하여 지겹고 힘든 것이라 생각한 강의 내용 활용과 딱딱하다고만 느껴졌던 자료정리를 자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한 과목의 강의노트

1,2학년 동안 수강한 과목들의 자료들

저는 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년 전, 한 영상에서 외국인 대학생이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노트북을 들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강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강의의 진행을 따라가기엔 노트와 책 대신 노트북을 앞에 두고 강의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노트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나만의 방법을 구상하고 만들어가며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트북과 더불어 저장을 위해 외장하드를 함께 활용하며 강의를 들은 지 2년이 넘은 지금,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두고 듣는 강의는 더 이상 생소하고 어렵지 않고 친근하고 재미있는 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강의 자료들 간의 연계를 통한 저만의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강의의 종강 후 여러 활동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로운 공부법과 정리법에 눈을 뜨는데 큰 도움을 준 '나만의 노트북, 외장하드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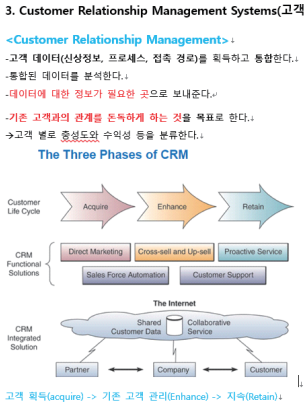
〈각 시기에 활용 할 수 있는 일석삼조 노트북, 외장하드 정리 방법&순서〉

1. 강의 시간과 강의가 끝나고 나서 두 번 정리하기

일반적으로 **교수님께서 1:多 형태로 진행하시는 강의들은 한 번의 강의 시간에 한 챕터나 한 개념을 기준으로 진도를 나가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를 기준으로 강의노트(pdf파일 또는 ppt파일)를 활용하는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강의노트를 활용하는 강의**는 강의노트의 내용들을 복사&붙여넣기(copy&paste)를 하거나 이미지와 수식의 경우에는 캡처도구(기본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나만의 노트에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의 중요도와 범위에 따라 글씨의 굵기와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색마다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여 정돈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정리한 한 강의(MIS)의 일부 내용입니다.



1. 큰 타이틀은 3포인트 정도 큰 글자와 굵은 표시
2.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개념은 파란 글씨로 표시
3. 새로운 용어나 생소한 내용은 굵게 표시
4. 개념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빨간 글씨로 표시
5. 강의노트에 나온 그림은 캡처도구로 복사 붙여넣기

이처럼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강의를 정리하면 다른 색의 펜으로 필기하거나 다양한 도형(동그라미, 세모, 별표)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내용들을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생소한 용어나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인터넷을 활용하여 빠르게 검색하여 그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 정리할 수 있습니다. (Word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단어나 글을 오른쪽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책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책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와 더불어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동시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정리할 때 구조화된 정리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단 10분의 복습 시간**만 할애하면 강의의 진행 때문에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이어서 정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

분은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라는 문구를 앞에 붙여 따로 정리해 다음 시간에 까먹지 않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과제를 하거나 발표 할 때 활용하기

다음으로 강의와 함께 진행되는 과제나 발표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과제의 경우 **강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둔 노트에서 해당 과제에 필요한 내용을 따로 복사해두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푸는 과제의 경우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공식은 찾기 단축키(Ctrl+F)를 활용하여 해당 키워드를 바로 찾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팀 과제의 경우 팀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한 과제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강의의 경우에는 우리 팀이 발표를 할 때와 다른 팀이 발표할 때 서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발표할 경우엔 발표에 대한 질문을 듣는 시간에 **해당 질문을 바로 기록하여 그 내용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발표 자료의 내용을 앞에서 소개한 단축키(Ctrl+F)를 활용해 대조한 후 답변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이 발표할 때는 **해당 발표의 내용과 수업의 내용들을 함께 놓고 비교하며 질문할 내용을 문장으로 미리 기록해두면 더욱 간결하고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Kodak - ↓
Is there any figure information like chart or graph about comparison between Kodak and other competitors?↓
→Analysis : logical thing(the opinion and evidence)↵

Yi Camera – ↓
new model - Yi Action? Yi camera↓
→I think Go pro is not a proper competitor. Because Go pro has different image like premium and **SJ CAM(china)'s SJ4000 Wifi**↓
resolution, weight, degree and accessories are much better than Yi camera↓
↓
In the promotion mix ,Xiaomi uses a method 'Personal selling' that is done at MWC(Mobile World Congress) 2015↵

발표 수업 시간에 정리한 질문 내용

3. 시험 기간에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응용하기

학기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두 번 찾아오는 시험 기간에도 노트북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나만의 시험노트'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나만의 강의노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으로 시험에 최적화된 노트**를 의미합니다. 즉, 강의노트의 내용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리거나 서로 연관되는 개념들을 한데 모아** 강의의 날짜에 관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수님께서 시험의 형태나 중요도를 함께 적어두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학기가 끝나는 시점이 오면 노트북에 저장한 파일들은 외장하드(또는 클라우드)에 백업해두면 되기 때문에 아까운 자료를 버려야 한다거나 방대한 내용들을 새로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학기가 진행되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전에 배운 개념들을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개념을 내가 정리한 파일로 들어가 바로 복사해서 새로운 과목의 강의노트에 붙여 넣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각종 세미나, 강연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내가 이미 배운 개념이나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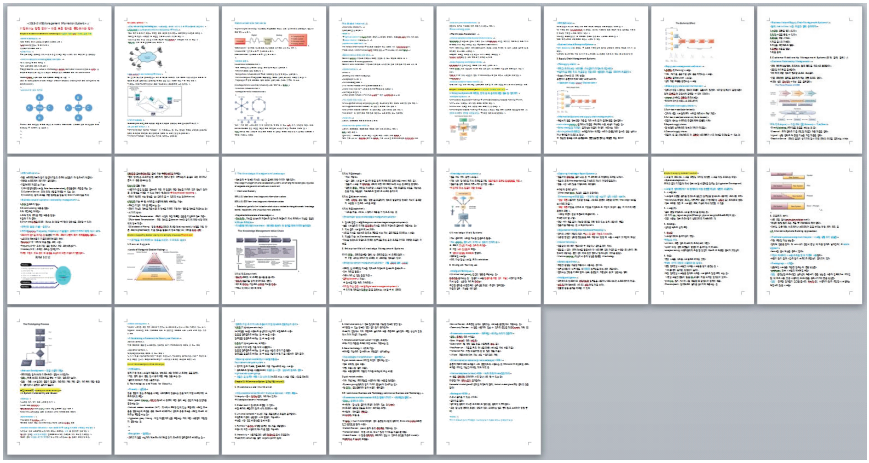
이처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리법이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리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누구든 예외 없이 이 주의사항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수업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절대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노트북의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이 마치고 복습 시간이나 과제 시간에 노트북을 충전시킵니다. 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땐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스마트 교탁에 비치된 콘센트 한 곳을 이용해 충전합니다.(맨 앞 자리에 앉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집중력 향상은 덤)

마지막, 본격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전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해당 강의 교수님께 직접 노트북 사용을 여쭙거나 메일을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안 되는 경우는 예외)

위에 소개한 '나만의 노트북과 외장하드 활용법'으로 네 학기 학기를 지나고 나니 저는 단순히 강의를 수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만의 지식 정리집'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고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석삼조 활용법입니다. 수업 수강의 시작부터 수강 후까지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강의를 정리하고 활용할 지 고민하는 학우가 있다면 제가 소개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수강하시길 추천합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 정리한 나만의 강의노트

년도 별, 강의 별, 항목 별, 시기 별로 정리한 구조화된 폴더와 파일들

공대생이 공대생에게 전하는 글 잘 쓰는 방법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1 류균

나는 아주대의 아주 평범한 공대생이다. 그런데 보통 공대생들과 조금 달리(?) 공대생치곤 글을 조금 잘 쓰는 능력이 있다. 이 덕분에 흔히 이공계생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교양과목이나, 복수전공 하는 문과 과목에서도 서술형 시험이라면 A+를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이나 인턴에 지원할 때도 그곳이 자소서 위주의 평가를 하는 곳이라면 거의 십중팔구 선발되곤 했다. 나에게 무슨 특별한 스펙이 있었나? 글쎄,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점이나 스펙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쪽이었다. 그러한 나에게 남들과 무언가 다른 게 있었다면, 단지 이 글을 읽는 공대생 여러분보다 조금 글을 '예쁘게' 쓴 것이 전부였다.

공대생들은 토로한다. 글 쓰는 건 정말 어렵다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글쓰는 '천부적인 재능'이 부족해서 교양과목이나 인문계 전공과목에서 도저히 인문계 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공대생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 말을 해주고 싶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잘 쓰진 못했어요."

그렇다. 열심히 한 것과 잘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그렇다면 공대생은 왜 '열심히' 하는데도 글을 '잘' 못 쓸까?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부족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공대생들은 상대적으로 글을 잘 쓰는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어떠한 후천적인 요소가 조금 달랐을 뿐이다. 그럼 지금부터 왜 공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글을 못 쓰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문제 1. 교과목 중에 글쓰기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잘 없다.〉

당신이 공대생이라면 여러분 방에 꽂혀있는 과목 전공서적을 꺼내보자. 수많은 수식과 영어로만 잔뜩 있는 전공 책. 공대 과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전공서적에서 줄 글로 된 설명 부분을 그다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공식만 외워가거나, 표로 정리된 내용만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전공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쓰여 있는 설명에 대해서 전부 읽어보지 않더라도 시험 답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공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의 큰 차이점이다. 인문계 학생들은 전공공부를 할 때 '~에 대해서 서술하라'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 공대 학생들은 '~를 구하시오'에 익숙해져 있다. 인문계 학생들은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문장에 비문은 없는지, 문장이 읽기 쉬운지, 분량은 적절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 완성되어 있을수록 시험 결과는 높은 점수로 이어진다. 그러나 공대 학생들이 쓰는 답안이 어디 그러한가? 내가 쓴 답이 비록 두 줄 이라도 그것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정답이라면 분량이나 비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론 인문계와 이공계가 지향하는 학문적 방향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목별 특성 차이는 공대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예쁘게' 쓰는 방법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 2. 일반 상식을 함양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유체역학'이나 '물리화학'이 일반 상식수준에서 쓰일 경우는 잘 없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중국 근현대사'나 '수원의 이해'는 우리에게 관련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상식수준을 함양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한다. 공대 과목의 특성중 하나는 이렇듯 수업이 우리에게 높은 전공적 지식을 배양해줄지언정 일반 상식수준 혹은 교양수업 과정에서 쓸 만한 글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중국 근현대사'를 배우는 인문계 학생들보다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글감이 부족하게 하고, 결국 같은 퀄리티의 글을 쓰더라도 인문계 학생보다 이공계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중간 결론.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요즘 사회는 'A자형 인재', '하이브리드형 인재'를 원한다. 취업시즌이 되면 주변에 4점대 평점을 넘어도 취업에 번번히 낙방하는 선배라던지, 스펙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서류 통과조차 힘든 친구들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친구들은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한다. '하... 내 스펙은 훌륭한데, 혹시 내가 SKY 출신이 아니라서 떨어지나?'

흠, 과연 그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서 낙방했을까? 최근 정부 주도의 탈스펙 선발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는 몇 줄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 해당 직무에 대해 내가 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자소서에 잘 녹여 써 그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가 취업의 관건이 되었다. 즉, 이제는 내가 그 취업 잘되는 공대생이며 내 스펙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소서'라는 글을 잘 쓰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취업을 보장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야 만 것이다. 따라서 공대생 여러분들도 더 이상 글을 못 쓴다는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을 잘 쓸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지만 어려운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step 1.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정보 웹서핑이라도 많이 하자.

당신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안다. 어쩌면 지금도 공업수학과 전공 숀 과제 때문에 하루 종일 밤을 지새우면서 우연히 이 글을 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당신이 어젯밤엔 롤을 하면서 피시방에서 네다섯 시간을 보내거나 예쁜 옷 찾는다고 밤새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낸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래. 나도 전공공부를 하다보면 한 번씩 머리도 식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사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왕 그렇게 놀면서 머리를 식힐 거 잠깐이라도 웹서핑 하면서 머리를 식혀 보는 건 어떨까? 책을 읽는 것은 상당한 '진입장벽과 기회비용(?)'을 필요로 해서 평소 읽기 힘들지만,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 하루 30분정도 뉴스나 연예, 스포츠를 웹서핑으로 찾아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에 비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투자하는 정보 웹서핑은 언뜻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읽는이로 하여금 에세이에 쓸 만한 시사나 최근 이슈에 대해 여러분의 지식을 업데이트를 시켜줌으로써,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다양한 글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step 2. 처음 글쓰기가 막막할 땐 개요부터 짠다. 개요도 못 짜겠으면 키워드부터 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할 때를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음료수'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야한다고 했을 때, 아마 당신은 '음료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척척박사처럼 전부 알고 있진 못할 것이다. 이럴 때에는 먼저 '내가 이 글에서 꼭 써야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주제에 어떤 내용을 쓸지 개요부터 짜보도록 하자. 만약 개요도 막막하다면 키워드라도 써보자. 예를 들어, '음료수'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고 가정하면 이 글을 쓰기 위해 '음료수의 역사', '음료수의 종류', '음료수의 성분' 등을 써야 한다고 먼저 정리한다. 그 다음 키워드 별로 제일 자신 있는 부분부터 글을 써나가도록 하자. 예를 들면 '음료수의 종류'에 대해서 쓰는 것이 제일 자신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작성하면 된다. 꼭 글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서론부터 써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의외로 유수한 저서들이나 좋은 글도 서론은 가장 나중에 쓰여 지는 경우가 많다. 글감이 막히는 단락은 과감하게 나중으로 미뤄두고 내가 자신 있는 단락부터 쓰도록 연습해야 한다.

step 3. 주제에 대한 관련 글을 자꾸 읽어보는 습관을 갖자.

이제 '음료수의 종류'에 대해서 다 썼다면 나머지 '음료수의 역사'나 '음료수의 성분'에 대해서 써볼 차례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내 지식은 전무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쓰라는 말인가? 이럴 때는 먼저 내가 쓸 주제와 관련된 글을 논문이나 서적,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자. 이 글들을 베끼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글들을 자꾸 읽어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포인트, 문장의 어조, 글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고 글을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려운 수학문제를 혼자 풀 때는 막막하다가, 누군가가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머릿속이 명쾌해지듯이,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내용에 대해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다른 글들을 참고 하는 것은 글의 퀄리티를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내에 쉽게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필요하다면 한 두 줄 정도는 내 글에다 다른 글 내용을 가져와도 된다. 단,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문헌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step 4. 당신의 전공지식은 글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다.

글을 어느 정도 완성했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전공인 공학을 살려서 인문계 학생들과는 차별될만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보도록 하자. 가령 '음료수의 성분'이라는 단락을 쓸 때, 화학.생명관련 과 학생이라면 '음료수 중 탄산음료에는 탄산이 입 안을 산성으로 만들어 입 안 뮤탄스균을 활성화시켜 치아를 부식시킨다. 이 때문에 임상결과 탄산음료를 안 먹는 사람보다 치아를 24.3% 빨리 썩게 만드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하나의 예시다. 즉, 글을 쓸 때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맞닿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글에 과학적 신뢰성을 더해줌으로써 글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준다. 다만 전공 관련 단어를 너무 남발하여 글이 난해해지는 것은 금물이다. 당신의 독자는 당신 전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글이 난해해지면 관련내용 비전공자인 독자로 하여금 글을 읽기 어렵게 한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당신의 전공지식을 '마치 길치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차근차근히 잘 말할 수 있다면 글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과 퀄리티는 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step 5. 글을 다 쓰고 퇴고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퇴고의 사전적 의미는 '시문(詩文)을 지을 때 자구(字句)를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는 일'을 말하는데, 즉 퇴고란 문장을 다듬고 어휘도 적절한가를 살피는 일을 말한다. 퇴고를 한 글과 퇴고를 안 한 글은 정말 많이 차이나는 데, 퇴고는 작게는 오, 탈자 수정에서 크게는 문장의 어조나 문단별로 말하자고 하는 맥락의 틀림을 바로 잡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 귀찮다고 절대 한번 쓴 글을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처음 읽는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 내 글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호한 곳은 없는지, 혹시나 비문은 없는지 여러 번 검토하라. 최소 두 번은 본인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싶다.

step 6. 최종 결론. 자만심은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공대생 여러분 중에는 교양이나 인문계 지식들을 배워봐야 '내가 나중에 이런 지식들을 어따 써?'라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심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대학을 다니며 지식을 얼마나 많이 함양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며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는지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는 여러분의 그러한 '소통 능력'을 취업 자소서에서, 업무 과정에서, 고과 평가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평가할 것이며, 이러한 '소통 능력'에 많이 기여하는 인문학적 지식은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는 공학적 지식만큼이나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이 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조직사회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다른 누군가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러한 글쓰기와 같은 소통 능력은 공대생

여러분의 사회경험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삶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글 잘 쓰는 능력이 인문계 학생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젠 공대생도 글 잘 써야 한다. 전공기반이 잘 닦여진 공대생이 글을 잘 쓰는 소양까지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취업 시장과 학교생활에서 그 누구보다 무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확신한다. 부디 이 글을 읽는 공대생 여러분들이 나의 조언을 통해 보다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되어 '전공 지식'과 '글쓰기'에 모두 자신이 있는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유 속에서 내가 찾은 것

국어국문학과 13 양성은

"누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주어도 쓰지 못한다."

이번 아주강좌에서 들은 가장 인상 깊은 말인데, 이것은 딱 나의 이야기였다. 2013년, 나는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대학교에 첫 발을 디뎠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업 스케줄로 빽빽한 나날을 보냈던 고등학교 시절, 내가 상상하던 대학교의 이미지는 '자유' 그 자체였다. '대학만 들어가면, 그러면 이런 힘든 억압은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학만 가면 돼.' 했던 내 생각은 그대로 '대학에 왔으니 이제 끝이다.'하는 허무한 결말을 낳았고, 목표가 사라진 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그저 멍청하게 낭비하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 학교를 안 간다고 혼내는 부모님도, 수업에 왜 안 오냐고 묻는 선생님도 없으니 그저 좋다고 강의를 빼먹는 날이 일쑤였고, 어쩌다 강의에 들어간 날에도 맨 구석 자리에서 끝나는 시간만을 재며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그렇게 중간고사 무렵까지 엉망으로 학교를 다니던 나는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여기에 있는 건가? 하고.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시험 기간이 되자 내가 저지른 일들을 점수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든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부모님께 휴학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1학기를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곧장 학교를 쉬겠다는 철없는 폭탄선언을 했다. 내가 대학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 혼자서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고. 부모님은 내 뜻을 존중해 주셨지만 학사 경고 도장이 찍힌, 올 F의 성적표가 날아왔을 때에는 집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나는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으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방학 계획을 짜 보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온라인 컨텐츠들을 녹화, 편집하는 일들을 즐겨 했었던 나는 조금 더 영상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력을 늘리면 의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입하게 된 중앙 영상 동아리에서, 어릴 적 꿈으로만 남겨두었던 영상 감독이 된 기분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다. 내가 직접 기획하고, 연출과 편집까지 내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상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다. '여성은 방송계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혹은 '스토리 기획, 연출, 편집을 네가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말들, 한때 쉽게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학업을 병행하며 영상팀을 꾸려 외주 작업을 받는 친구들이나,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라며 방송국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 당장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이 영상의 시작이라고 격려해주는 선배들 속에서 나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다. 동시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같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나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나 강의들을 찾아보던 중 아주대 미디어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과를 통해 미디어학과

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욱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학점이 발목을 잡았다. 저번 학기 망쳐놓은 성적 때문에 전과나 복수전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 일이니, 최대한 빨리 실수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학점을 전과 가능한 수준까지 복구하고, 학업에 충실하면서 꿈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방학 동안 세운 나의 계획이었다. 누구나 쉽게 세울 수 있는 광범위한 계획일지도 모르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해야만 하는 것도 없던 내겐 훌륭한 첫걸음이었다.

동아리 활동과 함께 방학을 보낸 뒤, 새 학기가 다가오자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생겼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요령이 없으니 그저 막막했다. 첫 계획을 세우고 난 뒤의 진전이라고는 '꼭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새 학기에 열심히 하자!' 하고 의지를 다진 것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에 요령이 없는 편이었다.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수업을 들으면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어느 부분을 꼼꼼히 필기해야 하는지 느낌이 확 온다는데, 나는 그런 데에 있어 다소 감각이 떨어졌다. 잘 안 되는 걸 순식간에 어떻게 바꾸겠는가?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나가기로 했다. 어차피 의지밖에 없었던 계획, 그걸로 밀고 나가자 하는 생각이었다.

우선, 동네 문구점에 가서 한 강의 당 노트를 두 권씩 샀다. 노트 한 권은 '기록용', 다른 한 권은 '정리용'이었다. 느린 이해력만큼 손도 느려 강의 시간에 깨끗하게 정리하며 필기할 자신이 없어 두 번씩 필기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 다음 고음질로 녹음되는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다운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시간에 졸지는 말자 다짐했지만 혹시 강의 내용을 놓치거나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때에 다시 듣고 싶을 수 있으니 녹음해 두는 것

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여분의 배터리를 넉넉히 챙겼음은 물론이다.

강의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다. 예전에는 강의 시작 전부터 이번 시간에는 뭘 하며 시간을 때워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했었다. 그러나 좋은 학점을 받고 싶고,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제일 앞자리에서 듣고 싶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녹음 어플을 켜서 핸드폰을 책상 옆에 뒤집어 두고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기록용 노트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부' 필기했다. 교수님 강의 속도에 맞춰 필기하느라 글씨체는 괴발개발, 노트의 줄은 신경도 쓰지 않고 휘갈겨 쓴 모양새였지만 그냥 그렇게 적었다.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말씀이 빨라 내용을 놓치면 대충 앞 몇 문장만 적어놓고 바로 쓸 수 있는 다음 문장을 필기했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끝날 때까지 나는 펜을 잡은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눈은 교수님에게 집중했다. 끝나고 나서 기록용 노트를 보면 아무렇게나 날려 쓴 것이 왼손으로 쓴 것 마냥 조금 웃기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에 있는 강의 녹음파일들을 컴퓨터로 정리해 옮기는 것이었다. 각 강의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폴더마다 나누어 집어넣었다. 파일 제목은 [강의 날짜_학습내용]의 식이었다.

그런 다음 기록용 노트를 펼쳐 놓고, 정리용 노트에 차근차근 그 날의 필기를 정리해서 새로 작성했다. 그저 말씀하신 순서대로 주르륵 적어놓은 필기의 순서를 새로 정리하고, 천천히 몇 번씩 다시 읽어보며 핵심 내용이라 생각되는 것은 색 볼펜으로 썼다. 내용이 빠르게 넘어가 앞의 문장들만 대략 쓰여져 있는 부분은, 대개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났지만 정말 모르겠다 싶은 것은 강의 녹음파일을 돌려 찾아보았다. 기록용 노트에 말씀하신 순서대로 적혀있어 필요한 내용을 파일의 어느 부근에서 찾아야 하는지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었다. 친구들은 가끔 필기 노트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필기하냐며 놀라기도 했는데, 엉망진창의 기록용 노트를 보며주면 '그럼 그렇지.'하며 웃고는 같은 필기를 두 번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날의 강의를 그날 다시 필기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애초에 한 강의에서 나오는 중요한 곳, 필기가 꼭 필요한 부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기록용 노트를 찬찬히 읽는 것은 훌륭한 복습이었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었다. 어쩌다 여러 날 노트 정리가 밀릴 때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붙들고 써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잠깐씩 틈을 내서 그날의 노트 정리는 꼭 그날에 하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필기 속도도 빨라지고,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거르는 감도 생겼다. 그래도 여전히 기록용 노트에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쓰려고 노력했지만.

시험 기간에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나의 정리용 노트가 가장 효율적이었다. 강의 내용을 몇 번 반복해 읽으며 엑기스만 추려낸 내용들이니 들고 다니며 공부하기 딱 좋았다. 핵심 부분을 봐도 봐도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녹음 파일을 틀어 교수님 강의를 통째로 다시 들었다. 어차피 출제자는 교수님인데, 강의 밖에서 내시기야 하겠느냐는 생각에 강의만 두 세 번을 돌려보기도 했다.

공부 습관이 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몇 번이고 그만 하고 싶고, 힘들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몇 번이고 나를 흔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꼿꼿히 서라고 잡아 주는 건 내 자신이 세운 목표였다. 앞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엔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는 부끄럽지만 솔직한 핑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내 자신에게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떳떳하고 싶었다.

시험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올 F를 지우고 학점을 빨리 높여 전과를 하고 싶다는 급한 마음에 전부 '재수강'을 선택한 나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재수강 최고 학점인 A를 받았다. 성적 공고 마지막 날 평점 4.0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을 때 그 벅찬 마음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틀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시험 직전까지도 내게 있었는데, 화면에 뜬 성적이 마치 내가 맞았다고, '수고했어' 하며 칭찬해 주는 것만 같았다.

학교 포털에서 학습 스토리 공모전에 관한 공지를 처음 읽었을 때, 내 이야기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클릭했다가 공부 비법을 나누는 에세이를 작성하라는 것을 보고 걱정이 먼저 되었다. 내 공부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에 너무 요령 없고, 무식하기만 한 방법은 아닐까? 강의를 들으며 핵심만 필기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공부법에 앞서 내 성적을 올린 첫걸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만큼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낸 나날들과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더 자세히 작성한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 나는 분명히 선천적으로 공부를 좋아한다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저렇게까지 열의를 보이며 학습에 매달린 것은 성적을 올려야만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영상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아 각종 영상 작업도 하고, 여러 공모전에 출품하기도 하며 바쁜 학교생활을 한다. 그러나 학업에 소홀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일은 늘어났어도 마음은 더 여유로워진 삶을 살고 있다. 마치 옛날의 나처럼,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틀 속에 갇혀 있을 때나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

A J O U U N I V E R S I T Y

장 려

- **[UCC] 나만의 코딩 방법**
  미디어학전공(과) 11 김성진
- **경제학 과목의 특성과 관련된 스터디의 적절한 운영과 활용 방안**
  경제학과 09 유지원
- **영어공부, 시작을 바꿔라!**
  컴퓨터공학전공(과) 09 이동기
- **학술논문을 통한 학습법**
  금융공학전공(과) 10 이호언
- **뽀모도로 기법을 통한 학습법**
  금융공학전공(과) 10 정성민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2015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UCC] 나만의 코딩 방법

미디어학과 11 김성진

무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 나는 당시 집에 웅크려서 겨울방학을 쓸쓸히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낭만적이었던 고독도 잠시, 곧 예비 수강 신청 기간이 다가왔고 커리큘럼 에 맞추어 수강 신청을 하느라 복잡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수강신청의 혼란 속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충격의 이유는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라는 교과목 이었다. 미디어 학과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주 험난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코딩 고수' 들만 듣는 수업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수업 이었다. 이 수업을 내가 수강한다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에 안전장비 없이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나는 계속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교수님이 강단에서 흰색 레이저를 쏘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꿈을 꿀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날도 있었다. 이렇게 겁을 먹은 상황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 책을 사서 미리 코딩 공부를 하는 방법 밖엔 없었다. VOD 로 무한도전을 시청하는 대신 책을 펴고, 핸드폰을 잡는 대신 연필과 컴퓨터를 부여잡고 코딩 공부를 해나갔다. 당시 어머님은 아들의

변화하는 태도에 매우 놀라워 하셨고 나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달라지셨다. 하지만 책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연신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뿜어내며 나의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이렇게 혼돈과 공포 속에서 나의 3학년 1학기는 시작되었다.

드디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첫 수업이 시작되고 나는 홀로 산학원 422호에 입장했다. 그 교실 속엔 역시 소문대로 '코딩 고수' 같이 보이는 학우들이 모니터를 보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속에 쪼그려서 고수들의 거침없는 대화를 들으며 홀로 앉아 있었다.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 고수들의 눈빛은 달라보였으며 나는 그 눈빛들을 동경하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 고수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코딩과의 고독한 씨름을 계속 해나갔다. 다행히 코딩을 하면 할수록 책을 보면 볼수록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매주 나를 새로운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프로그래밍 실습' 시간이었다. 당시 실습 시간을 진행하시는 조교님은 항상 엄청난 포스를 내뿜으시며 들어오셨고 시끌벅적하던 코딩 고수들도 모두 숨죽여 조교님을 지켜보았다. 조교님께서 매주 내주시는 과제들은 매번 신선한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예습 복습 한 것이 소용없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제출되었다. 과제를 하루 만에 해결한 적은 절대 없었으며, 어떨 땐 해결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기숙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힘들수록 더욱 간절하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과제를 해나갔다. 또 혼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조교님 연구실에 가서 질문하면서 어떻게든 과제를 완수해나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들을 스스로 해나가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에 사뭇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한학기가 마무리 될 때쯤, 교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핵폭탄급 과제를 하나 내주셨다. 그 과제는 바로 5명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보드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말 과제가 발표되었을 땐 고수들도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때 나의 마음가짐은 사뭇 달랐다. 이미 수많은 과제들로 웬만한 충격엔 내성이 생긴 상태였고 오히려 재밌게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부터 조금씩 게임을 완성시켜 나갔고, 내가 생각한 것이 컴퓨터에서 실현 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 뜨거운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재미가 붙으니 더욱 과제를 완성도 있게 해나 갈수 있었고, 결국 10점만 점에 부가점수를 합쳐 18점을 받는 초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다.

과제를 끝내고 보니 어느덧 한학기가 끝나고 뜨거운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컴퓨터 모니터 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란 글자 옆에 A+ 이란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처음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었다. 하지만 매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간 것이 이런 믿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 같다. 이런 좋은 학습 경험을 하게 해주신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코딩 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학습공동체(스터디 그룹) 활동 수기

: 경제학 과목의 특성과 관련된 스터디의 적절한 운영과 활용 방안

경제학과 09 유지원

Part 1. 경제학의 특성과 그 공부

1. 경제학은

경제학이라는 이론의 발달 과정에 수학과 통계학이 큰 기여를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기도 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한 과목인 금융경제학도 그 응용의 사례로서 경제학적인 직관에 수학과 통계학을 기초로 하여 이론을 철저하게 지탱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경제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학과 통계학에 대한 공부는 피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대다수의 인문계열 학생이 수학과 통계학에 대한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혼자 공부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2. 경제학 공부법

• 교수님의 강의 : 목적지로의 이정표 확인

목적지로의 효율적인 도달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정표를 확인하여 가고자 하는 곳의 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에서 교수님의 수업은 그 어떤 과목보다 중요합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다양한 모형으로부터 학생 개인이 경제학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공부를 한 학생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교수님의 수업은 공부의 출발점에서 효율적인 방향을 잡아 주는 이정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교수님 강의를 경청하여 그 이론적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 방법입니다. 교수님의 논리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논리적 접근의 시도에 있어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이론에 대한 탐구 : 한적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기

목적지로 향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더 좋은 길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던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단 두 시간만이라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단순히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논리를 기반으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고민 해보는 것입니다. 경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기업의 가치평가를 자금의 차입과 이윤 창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배당의 관점에서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고민한 끝에 교수님의 논리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교수님을 찾아뵙고 그 접근법에 대해 검토 받았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공부함에 있어 막연히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보고, 자신의 논리로 교수님을 설득 및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 스터디의 활용 : 목적지에 도달, 돌아온 길을 돌아보기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길 혹은 풍경이 더 좋은 길에 대해 정리하여 다음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학생인 스터디는 자신의 '알고 있음'을 점검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스터디에서 다른 학우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혼자 공부한 내용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명료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Part 2. 경제학 공부에서의 스터디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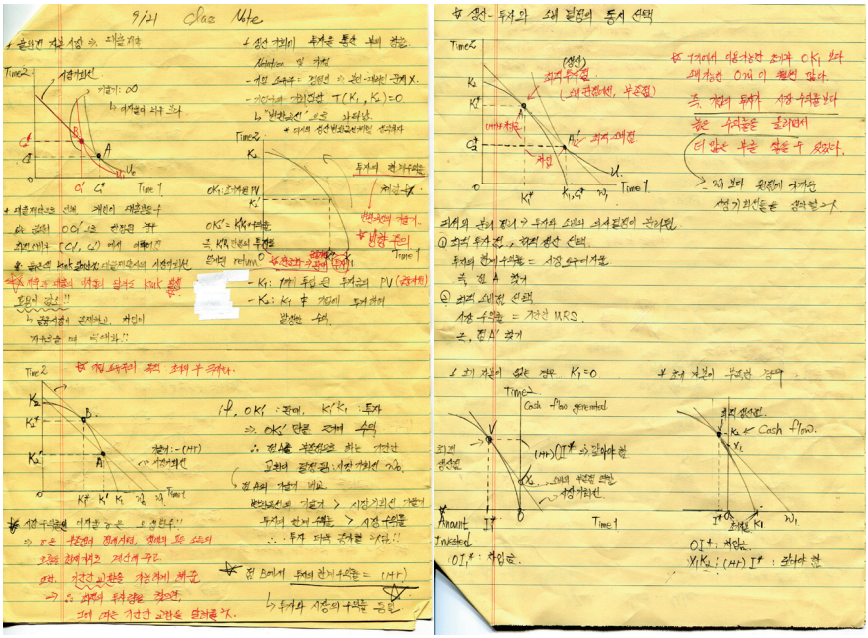
1. 적절한 스터디의 운영 방법

• 가시적인(visible) 공부의 지향과 그 효과 – 적자생존

경제학에는 수식을 활용한 증명 과정과 그래프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머리에 입력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구성원 개인이 스터디를 위한 공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림1〉과 같이 공부 증빙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면 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는 손으로 적어가며 공부하는 것이 승리한다는 적자생존의 원리입니다.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수기 정리 혹은 문제 풀이의 구체적인

과정을 학우들에게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이해한 수식과 그래프를 직접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공부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림1 〉

• 스터디에서의 기초이론 pass는 고득점으로의 hi-pass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애로 사항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시험에서 접하는 문제의 괴리감입니다. 이는 경제학 공부에 있어 수업 내용의 주를 이루는 기초이론만 완벽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감안하여 스터디에서는 기초이론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또한 단순히 기초이론에 대한 주제의 모임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등한시하고 스터디에서 배우자는 마음을 갖는 학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터디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제학 공부 스터디에서 함께 공부하고 다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대상은 수업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닌 수업 내용 이상의 함의 도출과 다양한 문제 풀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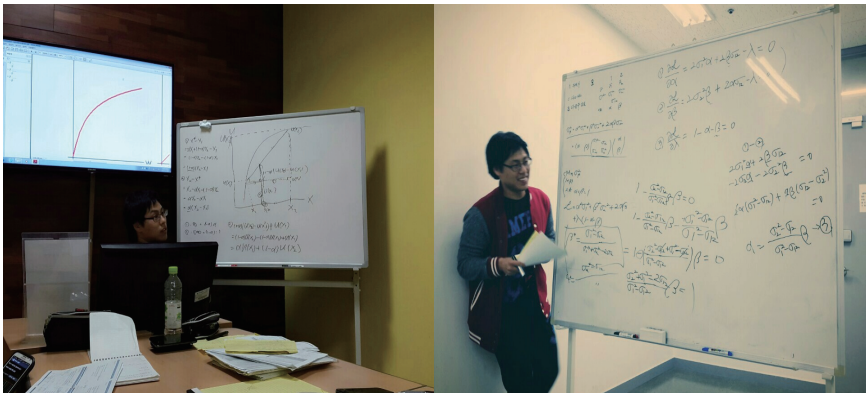
2. 스터디를 통해 함께 공부하기

• **"Dr.유"가 되어보자**

경제학은 단순한 암기로 승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완벽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요구합니다. 스터디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Part 1에서 잠깐 언급되었듯,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여 본인의 이해 정도와 적용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메타인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방법입니다. 메타인지란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빠르게 판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신이 친숙한 것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인지체계입니다. 착각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수준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우들의 질문과 접근법에 대한 의견 공유는 스터디가 지식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그림2 〉

• 출제자가 되어보자 – 강조하고 싶은 compact & impact issue!!

학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수동적인 공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터디에서 개인은 학생이기도 하면서 교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퀴즈 출제를 통한 학우들의 공부 평가와 문제 의도 파악 및 해설집 만들기입니다.

직접 퀴즈를 출제해 본다면 수업에서 배운 많은 것들 중에서 문제로 만들기 용이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자신에게는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과제에 대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세한 해설집을 만들어 학우들과 공유해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 가능한 순발력을 주고, 자신의 접근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탄탄히 할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을 통해 저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추려내어 스터디 내에서 종합하게 되면 완벽한 시험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 관련 첨부

– 첨부1_퀴즈 출제.hwp

– 첨부2_과제 해설.hwp

• 원석은 다듬어야 보석이 된다.

스터디에서 배워온 지식은 반드시 가공을 필요로 하는 원석입니다. 스터디에서 다른 학우의 논리를 듣고 얻게 된 것은 그 학우의 입장에서 나온 지식이므로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온 지식을 끊임없이 가공하여 자신의 보석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어공부, 시작을 바꿔라!

컴퓨터공학과 09 이동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인생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라 한다.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자신이 그려왔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나에게는 2012년 이른 봄에 찾아왔다. 그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허나 군대를 갓 전역한 나로서, 더는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었고,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그저 등록금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에, 공장이나 일용직을 닥치는 대로 일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찰나, 군대에서 후임에게서 들은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워킹 홀리데이란 서로 다른 국가간에 협력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여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이다.[1] 현재 우리나라는 20여 개의 국가 및 지역과 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 호주로의 워킹 홀리데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호주의 경우에는 우리나

라의 77배 이상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내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많기에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게는 4배 이상의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그 당시에 나는 영어와 돈,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욕심이 났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 모든 남자가 느끼는 그 감정,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였다. 허나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호주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니 그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나는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어공부와 동시에 호주를 가기 위한 초기 출발자금을 모으기로 결심한다. 그 6개월 동안의 영어공부는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영어공부 중 가장 효과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그 때의 내가 한 영어 공부 방식은 지금의 내 영어 실력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2015 아주인들의 학습스토리 공모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하였던 공부법을 공유하고, 누군가 영어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적었지만, 사실 내 글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지는 않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어공부 방식이 호주로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고 나의 결론은 '아니다'라고 내려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공부란 어떤 것이기에, 어찌하여 호주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을까? 그 당시까지 내가 한 영어공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이 배운 방식과 같았다. 시험을 위하여 영어 단어를 외우고, 주어진 글을 독해하고, 그에 맞는 문법을 골라내는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 기본적인 듣기나 읽기는 가능하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1)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contents.do?contentsNo=3&menuNo=3

'말하기'였다.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찰떡같이 알아 듣더라도, 꿀 먹은 벙어리같이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따라서 나는 나의 공부법을 바꾸어 보기로 하였다. 공부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나는 도서관으로 향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어공부를 향한 학구열은 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견줄 바가 안 된다 생각한다. 영어공부 서적만 도서관 한 구역을 차지할 정도이니 그 양은 가히 상상이 가리라 믿는다. 나에게 필요한 영어 공부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여러 책을 읽던 도중 나는 우리가 해왔던 영어학습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유치원생들에게 자음과 모음을 가르친 다음에 단어를 외우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게 하고, 글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한다. 그렇다면 이 학습법이 '우리가 하는 영어 교육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이가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전제조건을 빼먹었다. 바로 유치원생이 말하기를 먼저 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우리는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자음과 모음 등 글쓰기나 읽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영어 공부법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심지어 직장인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영어권 옹알이 아기수준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옹알이도 못 뗀 아기에게 처음부터 문법과 단어를 외우게 하고, 읽기, 듣기, 쓰기를 요구하니 공부의 순서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공부법의 모순을 깨달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영어 공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공부방법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나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왔다.

맨 처음 영어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나는 회화 책을 펼쳤다. 처음부터 무슨 회화 책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펼친 회화 책은 영어권 초등학생 수준의 대화를 구사하는 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영어공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각 외로 큰 도움을 준다. 내가 보았던 책은 대화의 흐름에 중심을 둔 책이어서 문법이나 단어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목적은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어떤 질문에는 어떤 종류의 답이 오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데에 있다. 회화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책을 읽고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회화 책과 같이 오는 MP3 음성 파일(MP3 파일이 없다면, 있는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을 듣고 그 MP3를 '성대모사' 하는 것이다. 이 '성대모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이는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다. 미국을 가고 싶으면 영어를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혀를 꼬아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보면 놀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놀림은 무시하고 원어민의 발음을 하나하나 캐치하여 '성대모사'를 해라. 그렇다면 영어 문장을 말함에 좀 더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학생 수준의 영어 회화 책을 몸으로 익히고, 중학생 수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몸으로 익혔던 회화가 떠오르고, 말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이다.

중학생 수준의 회화만 구사하여도 외국에서 사는 데에 큰 지장이 없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나 패턴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허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회화를 구사하여야 한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공부해 왔던 방식대로, 문법 및 단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나는 문법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렇게 회화를 먼저 몸에 익히고 문법책을 보니 이해가 좀 더 수월하게 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눈에 보이기보단 나 스스로가 말했을 때 이상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다. 내가 몸에 익힌 영어랑 달라서 이상함을 느꼈을 때 문법책을

보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니, 그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기존보다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문법과 단어를 공부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회화를 구현하고 싶다면 이제는 '미국드라마'를 보기 시작할 때이다.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을 담은 미국드라마를 추천한다. 그래야지 실제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감에서 어떤 영어를 쓰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연습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미국드라마를 꾸준히 보면서 듣고 따라 말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똑같은 미국드라마 (약 200여개의 에피소드를 가진 미국드라마)를 현재까지 5번 정도 반복해서 보면서 듣고 말하기를 연습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다.

위에 적어놓은 영어 공부법이 실제로 본인이 공부한 방법이다. 저렇게 6개월을 혼자서 공부하고 호주를 나갔을 때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면 그 효과는 매우 컸다고 본다. 내가 호주에 나갔을 때 느낀 점은, 해외연수는 '영어 공부'의 현장이 아니라 '영어 연습'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그 말인즉슨, 해외에서도 영어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해외를 나갔을 때 스스로 문법을 공부하거나 단어를 공부하기보다는, 직접 외국인들과 부딪히며 대화를 하고, 영어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서술 한 것의 핵심은 회화를 먼저 공부('성대모사'하듯이)하여 '말하기'를 몸에 익힌 다음 언어 공부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떠한 언어를 공부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믿는다. 어떤 이에게는 위에 나와 있는 공부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나는 이글에서 나만의 방법을 제시했지만, 강요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그에 맞추어 공부를 하고, 또한 본인의 공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영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학술논문을 통한 학습법

금융공학과 10 이호언

특정한 주제를 학습하는 방법은 매체의 발달과 함께 매우 다양해졌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며,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고, 학우들과 스터디를 조직하여 함께 탐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보가 단편적이거나, 시간 여건상 자세히 배우지 못하거나, 오히려 학습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 중에서 관련된 책 또는 교과서를 읽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주제는 다소 깊이가 있고, 특정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이론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은 분량이 수 백 페이지에 달해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교과서 같은 경우 이론에 중심을 두기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

책을 통한 학습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이론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학술논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논문의 종류에는 학술

논문(學術論文)과 비평논문(批評論文)이 있는데, 학술논문은 학문상의 연구 결과를 논술하는 글로 주로 사실의 진위(眞僞)를 순이론적으로 논증하는 문장이다.[2]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비평논문에서도 객관성이 중요하지만 학술논문은 더욱 엄밀한 객관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학습에 더 적합하다. 학술논문을 통한 공부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논문은 심사기관의 검토와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인터넷 특히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들은 사실여부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상당히 의존하거나, 내용 측면에 있어서 객관성과 정확성이 모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술논문의 경우 저자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통계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결과에 입각해 논지를 전개해나가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두 번째로, 학술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일정한 체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때문에 서로 다른 논문이라 할지라도 논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가능하며, 주제를 처음 접하거나 많은 양의 논문을 참고해야 할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나갈 수 있다. 개략적인 구성은 서론에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본론에 전개될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논문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설명한 후, 그 논의의 재료가 되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시작한다. 논문에서는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는 언뜻 보기에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대규모점포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전문점 등을 포

2) [네이버 지식백과] 논문 [論文]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대형마트는 그중에서도 생활용품을 중심으로한 대형소매업을 일컫는 하위개념이다. 이처럼 혼동이 쉬운 용어를 구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거나 주석을 통해 보충한다. 그리고 나서야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결론에서는 문제의식과 본론에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며 끝을 맺는다. 위와 같이 논문의 정형화 된 구성은, 두꺼운 책에 비해서 더 전문적인 주제로, 더 적은 분량으로 학습자가 그 내용과 논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학술논문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논문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저자의 의도대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서부터 문장 수준, 단어 선택까지 세심하게 고려한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자기검토와 동료 및 타인들의 검토로 글의 수준은 더 높아진다. 학습자는 논문을 읽고 고민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에서 저자가 전개한 논리의 흐름과 문장의 형식, 사용한 단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습득한 글쓰기 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작성함에 따라 더 연마되고, 학습자가 새로운 자료를 접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효과를 낳는다.

정보의 신뢰성, 체계적인 정보습득, 글쓰기 능력 향상 등 논문을 통한 학습은 책과 구별되는 장점들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문을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지 개인적 경험을 기초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를 주제로 학습하겠다고 가정한다.

먼저, 관련된 논문[3] 자료들을 구해야 한다. 논문들은 학회지나, 학술사이트, 전자저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원래는 유료인 곳이 많으나, 대학생들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로그인하여 e-Resource

3) 이하 '학술논문'을 지칭한다.

탭의 database항목을 들어가면 학술논문을 비롯한 논문들이 업로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나온다. 이 사이트들은 각 대학교 아이디와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별도의 로그인이나 결제가 없어도 논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위 주제의 경우 대형마트, 영업규제, 의무휴업 등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모두 다운로드 하였다.

두 번째로 다운받은 논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다룬 것부터 읽는다. 예시의 경우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라는 논문을 선택했다. 읽는 순서는 초록 및 요약-서론-결론의 순서로 먼저 읽고 이를 통해 전체적의 글의 주제와 다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윤곽을 잡는다. 그리고 나서 본론을 읽어야 하는데 만약 배경지식의 부족, 복잡한 이론 등의 문제로 본론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자신이 탐구하고자 했던 주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서론과 결론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만 정리하고 다운받은 다른 논문을 읽는다. 서론과 결론은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만으로도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학습자가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예시의 경우, 본문이 다양한 자료를 축약해 제시하고 있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이루어져 온 과정 설명이 부족해 아직 읽기에 일렀기 때문에 앞의 요약만 읽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새로운 논문을 펼쳤다.

세 번째로 두 번째 과정을 몇 번 반복하여 논문을 훑다보면, 본론을 읽어도 난이도나 주제의 관련성 면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서론 및 결론을 통해서 논문에서 다루어질 이야기를 짐작한 후에 본론의 내용을 읽어나간다. 본론을 읽어나가면서 주제에 관련된 주요 논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가령'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는 2012년 영업

규제 조례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의 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주요 개념인 조례의 정의와 특징 및 제한을 살펴본 후에 이를 영업규제조례에 대입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 진다. 또한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판결의 요지로 제시된 행정절차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다 읽은 논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 정리해두면 좋다. 이는 자신이 논문을 단순히 살펴보기 참고자료로 삼았는지 아니면, 주제에 대한 틀을 세우기 위해서 읽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론과 결론만 훑어보다가 처음으로 본론까지 모두 읽은 경우는 꼭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서야만 진정 자신의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약해둔 글을 다른 논문을 읽으며 비교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보고서를 쓰거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을 학습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논문은 저자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체계와 논리에 의해 작성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비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분량이 많은 교과서에 비해서 더 적은 양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교과서 밖의 현실에 얽힌 문제들을 더 다양하고 자세한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자들의 논리흐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학습자 자신의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다. 논문이라는 정보를 접해보지 않았거나 처음 접해보는 사람은 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논문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전문성, 복잡성, 어려움 같은 진입장벽을 넘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한 번 맛본다면, 논문이라는 것이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뽀모도로 기법을 통한 학습법

금융공학과 10 정성민

학습법 찾기

저는 대학교 1학년을 정말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항상 일주일에 세 번이상은 술을 마셨던 것 같고 행사나 축제가 있는 주에는 매일 술을 마신적도 있습니다. 동아리와 소학회를 같이 활동하였고 활동을 못가더라도 술자리는 항상 꼬박꼬박 참석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참 재밌었는데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춤 동아리여서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배님들이 하는 대외활동까지 따라하면서 학교 공부 외에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제만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험기간에만 공부를 몰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그럭저럭 본 것 같은데 기말고사 기간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외우기만 하고 들어가 시험을 쳤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많이 후회도 되었고 반성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 때 스스로 자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군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1학년 때처럼 보내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에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저것 하다보면 결국은 또 시험기간이 되서 허겁지겁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과 함께 퀀텀U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습법과 자기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 배우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퀀텀U는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인데 매 학기마다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 주중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공부와 과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이 열리면 참가했었는데 대부분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였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인연을 맺은 후로는 기회가 될 때 마다 참석하여 매학기 1 강의 이상 들었고 최근에 정리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뽀모도로 학습법이란 공부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과 관련된 학습법이라 인상이 깊어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처음 뽀모도로 학습법으로 공부하는 25분 동안 간만에 정말 집중이 잘된 상태로 공부 할 수 있었고 나와 잘 맞는 학습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습법을 들어보았고 직접 적용해 보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학습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학습법을 실천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번거롭거나 복잡한 학습법은 꾸준히 실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법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평소 제가 하던 방식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뽀모도로 학습법은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효과가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뽀모도로 학습법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학우 분들과 이 공부법을 모르셨던 분들이 제 글을 통해 사용해 보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뽀모도로 기법이란 무엇인가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모습은 가지각색인데 일정한 시간 공부를 할 때, 꼼짝 안하고 몰입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오래 앉아있지 못하며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지능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는 시간 관리와 집중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뽀모도로 기법입니다. 뽀모도로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를 뜻하는데 이탈리아의 대학생이었던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주방용 시계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을 창안해 냈습니다. 뽀모도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25분간 집중해서 일하고 5분간 휴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음 네 가지의 경우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목표와 동기가 분명할 때, 익숙한 것을 할 때, 일의 시간이 짧을 때. 이중 뽀모도로는 네 번째 경우를 이용하는 시간 관리에 해당합니다. 시간을 짧게 쪼개는 방법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뽀모도로로 기법을 공부에 적용시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날 공부해야할 목록을 만들고 공부할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 목록마다 해야 할 공부의 양에 따라 뽀모도로가 몇 사이클이 필요한지 배정합니다. 뽀모도로 한 사이클은 25분 공부에 5분 휴식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25분씩 타이머를 맞추고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25분 후 타이머가 울리면 공부를 중단하고 5분간 휴식합니다. 5분 휴식 후 다음 목록의 공부로 들어갑니다. 25분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 휴식을 반복합니다. 하루 공부 일정이 끝나면, 그날 공부한 목록과 시간을 정리하고 검토합니다. 뽀모도로는

효과적이고 간단한 시간 관리법이지만 뽀모도로 공부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뽀모도로의 룰은 25분 공부에 5분 휴식, 그리고 계획한 공부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룰을 바꾸면 뽀모도로 공부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효과가 반감됩니다.

쓸모가 많은 뽀모도로 기법

이 기법이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참 힘든데 뽀모도로 기법처럼 타이머를 이용하여 밥을 먹이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몇 분 동안 밥 먹을 것인지 물어본 후에 그 시간이 지나면 밥을 치우고 정해진 시간외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지금 안 먹어도 나중에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아이가 말한 시간 외에는 밥을 주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치워버려 식사시간외에는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식사시간에 아이가 정한 시간 안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뽀모도로 기법을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모님께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뽀모도로 기법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부 외에 다른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므로 시간을 더 늘리거나 줄여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도 됩니다. 타이머를 설정한다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의 밸런스

대학생이 되니 공부 외에도 신경 쓰는 것이 많아져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집중의 최대 적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방해를 받지 않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분명히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낮을 것입니다.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님과 직원들 모두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느 곳이든 쉬는 시간을 보면 모두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부나 일에 성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불편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생활을 참 편리하게 해줍니다. 예로 전자결제앱이 있는데 무슨무슨페이란 앱을 사용하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몇 초 만에 단축시켜 줍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카카오톡을 확인하면서 인터넷 쇼핑, 기사, 만화를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많이 지나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공부에 집중 하려면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하는데 뽀모도로 기법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뽀모도로 기법을 사용하면 25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5분간 쉬는 시간동안만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

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시간을 설정해서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시간을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메시지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던 버릇이 뽀모도로 기법을 사용하면서 고쳐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뽀모도로 기법입니다.

공부시작버튼

저는 공부하러 가자마자 바로 시작하기가 힘들고 공부시동을 거는데 시간이 걸리는 학생입니다. 공부할 것을 책상에 펼쳐놓고 스마트폰을 켜서 이리저리 만지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 내용이 생각나거나 이리저리 잡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많다고 여유 부리다가 공부를 하나도 안하고 저녁 먹은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물 흐르듯이 계속 하게 되는데 막상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항상 나중에 후회를 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연하게 뽀모도로 기법이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뽀모도로 기법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책상에 앉자마자 일단 타이머 시작버튼을 누릅니다. 처음에는 25분만 열심히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버튼을 눌렀는데 지금은 반사적으로 시작버튼을 누르면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의미 없는 시간을 줄여주고 공부를 하다보면 점점 속도가 붙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시동을 걸기위해 이것저것하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스타일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심이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책을 여러 번 보는 방법, 책을 보면서 노트에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방법, 이해가 될 때 까지 한 과목만 이틀 삼일씩 보는 방법 등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고 사람들 수만큼 공부법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남들과는 다른 공부방법이 있는데 문제와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여러 번 읽어서 이해를 하고 내용을 외워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적이 많았고 그럴 때 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문제를 보고 해설을 따라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를 통해 공부하는 방식이 집중이 잘되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 보다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외에도 공부학습법에 관련된 책과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공부법을 직접 해보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십 가지 조건들을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공부법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키우기만 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뽀모도로 학습법을 알게 되었고 실천해본 결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지금도 뽀모도로 학습법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지만 공부 외에도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뽀모도로 기법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공부외의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 글을 읽고 뽀모도로 기법을 적용하여 자신만의 공부스타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공부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